

한솔그룹, CCUS 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실현 박차

CO₂ 포집 파일럿 설비 시운전
ISO 인증 등 실질적 성과 창출
“환경경영 체계 고도화 추진”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솔그룹이 친환경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한솔제지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 개발·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 ‘넷 제로(Net-Zero) 탄소중립 로드맵’을 차레로 실천해나가면서다.

특히 한솔그룹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감축의 핵심인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14일 한솔그룹의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한솔제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은 프로테고, 테라바스, 듀라클이 있다.

‘프로테고(Protego)’는 수분과 산소 차단 성능을 갖춘 고차단성 종이연포장



한솔그룹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솔그룹

소재로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복합재를 대체하는 소재로, 포장 및 냉음료 파우치 등 40여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테라바스(Terravas)는 폴리에틸렌(PE) 코팅 대신 한솔제지가 자체 개발한 재활용률 90% 이상의 수용성 코팅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종이 용기다.

2022년 당시 20.1% 수준이었던 친환경 제품 매출 비중은 지난해엔 23.5%까

지 늘었다. 이들 제품은 친환경 인증인 ▲환경표지 인증 ▲GR 인증 ▲UL 2485 ▲UL ECV 2485를 받기도 했다.

한솔제지는 중앙연구소를 통해 사업 부문별 친환경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한솔제지는 CCUS 기술 개발을 목표로 대전공장 소각로에 국내 제지회사에선 처음으로 CO₂ 포집 파일럿 설

비 설치 및 시운전을 진행한 바 있다. 한솔제지는 ‘푸른 지구 실현으로 세계적인 환경기업 달성’이라는 녹색경영 비전도 수립했다.

건자재 계열사인 한솔홈데코는 세계 최초로 100% 재생 원료만을 사용한 MDF 제품 ‘한솔 리사이클 MDF’를 출시했다. 한솔홈데코는 친환경 제품 매출 비중이 2022년 당시 29.8%에서 지난해엔 38.1%까지 늘어났다.

산업용 테이프 전문 계열사로 국내 영업용 랩 시장 1위인 테이팩스 역시 환경친화적인 식품포장용랩을 개발하는 등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한솔제지는 단기적으로 2030년까지 원가경쟁력 향상과 전력·스팀과 같은 자체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고, 이후 친환경 연료 및 전력 사용, CCUS 등 탄소 감축 신기술 사업 개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한솔홈데코는 2030년까지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에

해당하는 약 3만t을 감축하고, 2040년까지 약 8만1000t을 추가 감축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계열사인 한솔아이원스도 친환경공정개선 컨설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설정·수립했다.

지난해 12월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한솔테크닉스는 에너지 사용량 최적화, 비용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솔홀딩스 이명길 대표는 “한솔은 전 그룹 계열사에서 국제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기반으로 ‘친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해 실천해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제조 계열사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환경경영 체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진공, 성과보상공제 가입자 혜택 강화

교육·복지 서비스 통합신청 접수
강석진 이사장 “프로그램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성과보상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통합신청 접수를 지난 9일부터 시작했다.

14일 중진공에 따르면 성과보상공제는 ‘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우대저축공제’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기존의 개별 접수 방식의 교육·복지사업을 하나의 통합신청 체계로 개편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입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접수를 통해 총 705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영어캠프, 독서통신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 바우처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초등학생 자녀(3~6학년)를 위한 어린이 영어캠프가 중소기업(안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산경남(진해)·호남(광주)·대구경북(경산) 등 전국 4개 연수원에서 8월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동시에 열린다.

또한 ‘밀리의 서재’ 또는 ‘월라’ 등 디지털 독서 콘텐츠를 3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독서통신 교육과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이러닝 플랫폼(SSUP)’을 통해 약 1000개 이상의 직무·자격 관련 온라인 교육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도 지원한다.

복지 분야는 여름 휴가비 쿠폰 지원, 농어촌 마을 체험휴양 무료제공, 온라

인 복지물 할인혜택으로 구성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제휴해 최대 20만 원까지 휴가비 쿠폰을 지원하고 있다. 쿠폰은 전국 주요 숙박·여행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포함) 및 재직자우대저축공제 가입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석진 이사장은 “교육·복지 서비스는 성과보상공제 가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높이고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과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공제 가입자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키우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누적 8만1615개사, 16만9384명의 재직자를 지원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SK스피드메이트, 공임 견적 표준화 선도

차량공임 견적 경진대회 개최

SK스피드메이트가현대하이카손해사정과 함께 허클베리프로의 수입차 견적 시스템을 활용해 차량 공임 견적 표준화와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에 나선다.

SK스피드메이트는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현대하이카손해사정, 수입차 공식 딜러사 및 협력 공업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클베리프로의 수입차 견적 시스템을 활용한 차량 공임 견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대회에서는 문제로 출제된 차량 사고에 대한 수리 견적을 얼마나 정확히 산출하느냐를 심사했으며, 독일 자동차 데이터 기업 DAT의 시스템 사용 심화 교육 및 참가자 대상 인증서 지급도 이뤄졌다.

이번 경진대회에 사용된 허클베리프로의 수입차 견적 시스템은 SK스피드메이트가 독일 자동차 데이터 전문업체 DAT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정확한 수입차 부품 데이터를 제공해 견적의 완결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SK스피드메이트는 수입차 통합 관리 플랫폼인 허클베리프로를 현대하이카손해사정 등 보험사들이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고를 처리하고,



(왼쪽부터)안무인 SK스피드메이트 대표, 이재열 현대하이카손해사정 대표가 지난 11일 SK스피드메이트가 개최한 수입차 공임 견적 경진대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스피드메이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입차 부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무인 SK스피드메이트 대표는 “업계 관계자들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허클베리프로의 수입차 견적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견적 산정 기술을 익히고 시스템 개선점을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진대회의 의미가 크다”며 “수입차 부품 유통 선도 기업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임 견적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RE100 기업, 무탄소전력 부족할 것… 제도적 뒷받침 필요”

한경협 ‘PPA 활성화 과제’ 보고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들의 평균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42년에도 국내 4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 21.4테라와트시(TWh)의 무탄소 전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전력구매계약제도(PPA)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했다. 보고서는 4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반도체·데이터센터·석유화학·철강)의 전력 수요를 무

탄소 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 올해 5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2038년 4대 산업의 무탄소 전력충당률은 81.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탄소 전력에 대한 수요가 모든 산업으로 확장될 경우 충당률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한경협은 ‘전력구매계약제도 활성화’를 무탄소 전력 초과 수요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력구매계약은 기업과 발전 사업자가 계약을 맺어 전력을 공급 받는 방식이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구매시 지불하

는 전력거래대금 중 망이용료, 전력기반금 등 부대비용을 한시 면제 또는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비주기적으로 공고되는 전력배출계수의 공개 주기를 최소 연단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주력산업은 경영위기와 함께 무탄소전력 사용 요구에 직면하는 등 이 중고를 겪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무탄소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코웨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동참

코웨이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동참한다.

14일 코웨이에 따르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대상인 자사 제품은 ▲노블 제습기(AD-1221E) ▲인버터 제습기 23L(AD-2325C) ▲듀얼클린 제습공기청정기(APD-1023A) ▲노블제습공기청정기(APD-1025E) ▲콤팩트

파워공기청정기(AP-3018B) ▲파워업 공기청정기(AP-3522F) ▲파워업 공기청정기2(AP-3525I)다.

대상 제품 중 제습 관련 제품군은 환급 외에도 8월 말까지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활용해 신규 렌탈 시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반값에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